

한라시론



김용성
시인·번역가·교사

AI 시대 자녀에게 키워줘야 할 역량으로 AI가 대체하기 힘든 ‘창의성’을 우선으로 꼽을 수 있다. 게임이나 쇼츠 영상에 노출되다 보면 근시적이고 단편적인 사고에 빠져 복합적인 현실 문제에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한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은 문제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배경과 맥락을 통찰하는 능력과도 직결된다. AI 시대, ‘창작’은 창의성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창작 활동으로 ‘감성 글쓰기’가 있다. 일기처럼 써도 좋

AI 시대, 창의성을 위한 ‘창작’ 교육

고, 생활 속에서 주제를 스스로 정해 쓰기도 한다. 경험에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꺼내는 활동을 통해 스스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자기 생각을 글로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면 좋다. ‘자기표현’이 서툰면 창의력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독서와 연계해 ‘독서 글쓰기’도 꾸준히 하면 좋다. 독서를 통해 얻은 간접 경험에다 상상력이 더해지면 이게 곧 창작 콘텐츠를 풍성하게 한다. 통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물론이다.

▷나아가 ‘논리 글쓰기’를 권장한다. 주제에 맞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근거를 제시하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예측 불가능한 별별 문제 상황에 부딪힐 일이 많은데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은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

가는 과정에서 구현되기 마련이다.

▷‘동시 쓰기’도 창의성과 관련해 추천한다. 동시를 통해 생각을 열고 다양한 시선으로 ‘독창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경직되고 뻔한 시선에서 벗어나다면 ‘독특한 발상’과 ‘남다른 눈길’로 자기 생각을 드러낼 수 있다. 교과서적인 평균화된 인제보다 ‘틀에서 벗어난’ 인재가 AI로 대표되는 미래 사회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짧은 동화 쓰기’도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내가 운영하는 학급에서 어린이들이 실제로 A4 절반 크기 16쪽 미니 동화책을 만들어보면 제목도 주제도 내용도 다 다르고 참신하고 재밌기까지 하다. 무엇보다 16쪽이나 되는 분량을 자기 주도로 독창적으로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무궁무진하게 창의성을 즐기게 된다. 비슷한 분량의 그림책

과 만화도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어보면 좋다.

이러한 창작 교육에 있어서 유의점은 교사나 학부모가 창작에 관한 전문성을 꼭 지녀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창작의 내용은 가르칠 수 없다. 다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어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은 무궁무진하고 신선하고 독창적이다. 채근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스스로 툭툭 튀며 생각하고 구성하고 밖으로 꺼낼 줄 안다. 교과서적인 풍부하고 번듯한 지식이 돋보이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AI 영향이 지대한 지금은 인간의 본질적인 창의력이 더 필요해진 시대다. AI 시대에 풍부한 창의성이야말로 생존을 높여주는 경쟁력이다. 자녀의 풍부한 ‘창의성’ 발현은 어릴 때부터 ‘창작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 잊지 말자.

사설

체불임금 272억… 설 앞뒤 해소 만전 기해야

제주지역 체불임금이 270억원을 웃돌면서 설 명절을 앞둔 임금 체불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 사업장은 1061곳, 근로자는 2924명에 달한다. 체불임금은 272억4300만원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체불액이 94억1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5억6700만원,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37억300만원 순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체불임금이 109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29인 사업장 100억8300만원, 30~99인 사업장이 48억5100만원이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예방활동 추진

현황 점검과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주도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한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권한 업무 이양을 통해 도내 체불임금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다. 임금이 체불되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데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기업들이 적지 않다.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에다 체불 사업주 역시 벌금형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당국은 설 명절 전에 임금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열린마당

제주 저탄소농업, 땅을 살리면 농업이 산다



이행주
제주시 농산물유통팀장

최근 농정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저탄소 농업’이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풀면 이렇다. 농사 과정에서 기름·비료 같은 탄소 배출은 줄이고, 대신 땅이 탄소를 더 많이 머금게 하는 농사 방식이다. 깊게 갈지 않고, 풀을 덮어 키우고, 유기물을 늘려 토양을 살리는 방식이다. 땅이 살아나면 물도 잘 머금고, 뿌리도 튼튼해지고, 병도 줄어든다. 결국 작물 품질이 좋아지고 생산비도 줄일 수 있다.

이건 환경운동 이야기가 아니다.

농민이 오래 농사짓기 위한 농가 생존전략이다.

제주도도 이런 흐름을 알고 있다. 여러 시범 사업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농민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체감이 크지 않다. 참여해도 당장 소득이 늘어나는 게 보이지 않고, 행정 절차는 복잡하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좋은 건 알겠는데, 현실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 제주에 필요한 건 ‘시범’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는 실증이다. 저탄소 농사를 지으면 생산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품질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에 보여야 한다.

중요한 건 농민 혼자 하려 두지 않는 것이다. 개별 농가가 아니라 마을 단위, 작목반 단위로 함께 가야 한다. 행정은 기술과 데이터를 지원하고, 농협과 유통 조직은 판로와 가격 책입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 ‘오피니언’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설 연휴 감염병 비상방역반 가동

도, 예방 수칙 준수 강조

연휴 1366제주센터 협조 당부

○…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인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감염병 비상방역반과 식중독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감염병과 식중독 발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해외 유입 감염병, 인플루엔자·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을 중점 관리.

제주도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 입국자는 제주공항 등 전국 공·항만 검역소에서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연휴 기간 모임 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외출을 자제하는 등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0일 여성 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를 방문, 여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상담원들을 격려.

제주경찰은 2015년 10월부터 제주도-1366제주센터-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간 가정폭력 공동대응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정폭력 등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고 청장은 “설 연휴에는 가정폭력 등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이나 폭력 신고가 집중되는 만큼, 피해 발생 시 경찰과 1366센터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긴밀한 지원 체계가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대규모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 암초 넘을까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의 공추도2.0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가칭)’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 희망자 2단계 평가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서다.

세계 최대 규모라는 이 사업은 1차 유찰에 따라 재공모를 실시해 1~2단계 평가를 거쳐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에서 구체적 사업 내용 등을 담은 2단계 서류를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2,37GW로 최대 24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중부발전의 사업 포기 배경을 두고 연 1300억원 규모의 도 이익 공유금, 전력 계통 연계 한정, 관할권 분쟁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공사에서는 “중부발전이 시공 능력은 있었으나 사업 추진 여건과 환경이 맞지 않아 내부적으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가 최종적으로 공모에 불참한 데 이어 단독 입찰했던 중부발전까지 빠지면서 추자 해상풍력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에너지공사 측은 공모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 애초의 사업 계획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35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세웠다. 에너지공사는 이 점을 들며 사업 백지화에 선을 그은 만큼 이번엔 제대로 된 설계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부고

강권익(前 제주대학교 도서관과장) 어머니 제주양씨 상월(향년 97세)께서 서기 2026년 2월 10일 03시 15분에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6년 2월 12일(목요일)
▶발인일시: 2026년 2월 13일(금요일) 오전 9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해안동 가족묘지

아들	강권익	며느리	이희숙
	경훈		이윤정
	기훈		이정인
딸	강영임	사위	김경호
	경희		김경웅
손자	강태한	외손자	김대현
	병철		김기현
	상현		김현수
손녀	강주연	외손녀	김현지
	지원	외손부	이혜영
	지우		손다정
	민지		
손서	김동완		

※ 연락처 : 강권익 010-8661-0747
강경훈 010-3699-4227
강기훈 010-9712-0737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강가재(성도·향년 85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6년 2월 12일

아들	양경철	며느리	허진이
딸	선일	사위	고대로
	순희		고기수
	순임		
	순주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6년 01월 28일 주주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산 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6년 04월 20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삼엄 제 535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26. 2. 12.

주식회사 매월친환경 농업회사법인
제주시 매월읍 유수임동3길 59-2, 103동 (후은스테이 유수임)
청산인 김준관

모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작명☆백일☆사주☆운세 상담

- 운명과 삶의 흐름을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사주와 맞는 좋은 이름을 작명해 드립니다.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은퇴 없는 평생직장 역학상담사
1. 역학상담사 자격증반 2. 철학원 창업반(통변중심)
※ 개인교습으로 수시모집

☎ 연락처 동방철학원 064)759-4585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도지부장 문학립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